

해외 기업간 거래 데이터 활용사례 및 국내 기업의 활용전략 Case study of transaction data between global corporation and usage strategy of domestic corporation

김강희, 이호신, 임대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m Kang-Hoe, Lee Ho-Shin, Lim Dae-Hyun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요약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해외 기업 간의 거래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밸류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 기업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해외 기업정보 DB를 제공하는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의 거래정보 서비스 제공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국내 밸류체인 네트워크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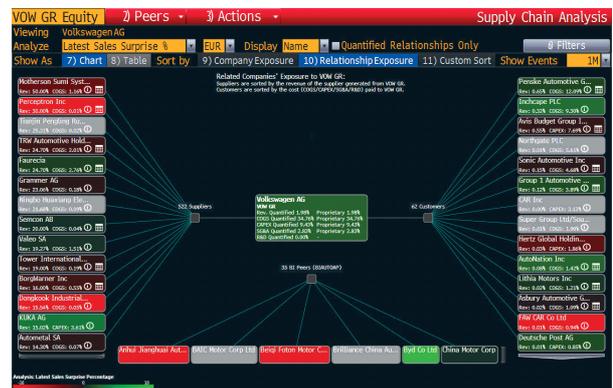
최근 국내에서도 국내기업 간 실제 거래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밸류체인 네트워크 정보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기업 간의 거래정보는 기업의 경영자와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국내 기업 간의 거래정보를 모든 기업들이 활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히려 해외 기업들 간의 거래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해외 거래처를 발굴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신용평가정보나 DB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기업의 정보를 보유·서비스하고 있고, 이 정보들 가운데 기업 간 거래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개별기업의 정보에 나타나는 거래정보는 관련 산업 전체를 바라보기 위한 정보로서는 한계가 있어 이 정보들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정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기업 간의 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Bloomberg, Standards & Poors, Thomson Reuters 등과 같은 신용평가 기업들의 기업거래 네트워크정보 서비스 제공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국내 플랫폼과 연계시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II. 해외 사례 연구

Bloomberg는 금융시장의 뉴스와 데이터, 분석정보를 서비스하는 미국의 미디어 그룹으로서 수천 건의 재무제표, 발표자료, 보도자료 그 외의 수많은 출처자료들을 조사하여 공급망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서비스한다. 기업들의 공시자료와 회의통화 기록, 발표자료, 보도 자료 또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거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Bloomberg의 알고리즘인 Bloomberg's Supply Chain Algorithm(BSCA)를 통해 기업간 거래규모를 최대한 근사하게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된 데이터를 근거로 Bloomberg는 공급망 관련 데이터를 차트형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다(그림1). 이러한 공급망 관련 데이터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차트형식 뿐만 아니라 도표 형식으로도 제공하고 있으며, 각 거래 기업 간의 매입, 매출, 경쟁사의 디테일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기업은 전 세계 약 26,000개 기업이며 국가적 제한은 없다.



▶▶ 그림 1. Bloomberg의 공급망 정보차트(폭스바겐 사례)

Standard & Poors는 Moody's Investors Service, Fitch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서,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에서 Business Relationship 기능을 통해 특정 기업의 고객, 공급사, 전략적 제휴기업, 그리

